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계 21:4)

고인들께서는 그리스도예수안에서 영원한 장막을 입고 하늘의 처소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3. 우리는 고인들을 추모합니다.

우리가 고인들을 추모하는 것은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인들께서 천국에서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충성할걸, 더 용서할걸, 더 사랑할 걸... 하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추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분들의 이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소원해야합니다. 그것이 이 추도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아쉬움을 기억하며 우리 유가족들은 사랑하시는 고인들께서 천국가기에는 아무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고인들께서 못 다한 선한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 내시는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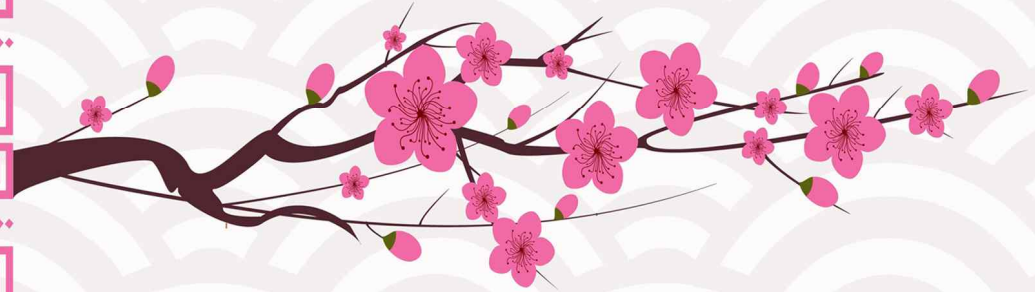
모든 인생은 ‘순례자 pilgrim’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우리도 본향 천국에 올라가 고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더 힘쓰시고,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내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시편 103:17)



2017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 맞이

| 가 | 정 | 예 | 배 | 모 | 범 |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천은광고회



설맞이 가족예배 모범

목 도 다 같 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시편 115:10)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384장/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 이

1.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2)
2.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죽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2)
3.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기 도 인도자(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4 다 같 이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
나니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
으려 함이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집 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설 교 “영원한 장막을 사모합시다” 설 교 자

가족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영원한 장막을 사모합시다”

| 고후 5:1-4

1.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육체는 장막 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 즉 천막에 비유했습니다. 천막은 아무리 비싼 소재로 제작 한다 해도 세월이 가면 낡아집니다. 각 조직이 느슨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해체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히 9:27)라고 선언합니다.

천하의 대장부 다윗왕도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왕상 2:2)라고 유언합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시 90:3)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임시적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면 인생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장막)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낡아지고 죽지만, 예수 안에 있는 육체는 부활하여 영생함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덧입고자 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첫 장막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원래 주소지이고, 지상은 임시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즉 영원한 장막을 입고 살아갈 하늘 본향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알려줍니다.